

5년만에 우승... “자기야, 내가 해냈어!”



데뷔 시즌이었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주기로 우승을 달성한 허미정이 챔피언 퍼트 직후 두 팔을 크게 벌리며 환호하고 있다.
노스 베리크(영국) | AP뉴시스

최종합계 20언더파 264타...통산 3승 투어 동행한 남편 앞에서 뜻깊은 우승

데뷔와 함께 첫 승을 거뒀을 때는 골프가 참 쉬워보였다. 그러나 시간은 너무나도 야속하게 흘렀다. 5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찾아온 두 번째 우승. 다른 이들과 달리 ‘부활’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승이란 존재는 5년이란 세월을 필요로 했다.

허미정(30·대방건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2009년 데뷔 첫 승과 2014년 두 번째 정상 등극 그리고 스코틀랜드 오픈(총상금 150만 달러·약 18억 원) 제패까지... 우연처럼 5년마다 가슴앓이를 했던

주인공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허미정은 12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클럽(파71·6293야드)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같은 챔피언조인 이정은(23)과 모리야 쥘타누칸(25·태국)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20언더파 264타로 정상을 밟았다.

경기는 한때 챔피언조 선수들과 앞조 이미향(26)까지 총 4명이 공동선두를 이룰 만큼 치열하게 전개됐다. 계속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반 주도권을 잡은 이는 허미정이었다. 9~12번 홀 결정적인 4연속 버디로 단독선두로 치고 나갔다. 후반 들어 이정은과 이미향이 경쟁에서 밀려난 가운데 마지막 경쟁자였던 쥘타누칸 역시 파3 15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면서 우승과 멀어졌다.

여기서 승기를 잡은 허미정은 16번 홀(파5)에서 썬기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18번 홀(파4)에서 챔피언 버디 퍼트를 집어넣고 두 팔을 번쩍 들며 환호했다.

박세리(42·은퇴)와 같이 대전이 고향인 허미정은 ‘세리 키즈’의 진정한 일원으로 꼽힌다. 주니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대전체고 시절 국가대표를 지냈고, 2005~2006년 전국체전 개인전·단체전 2연패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08년 미국으로 직행해 2부투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허미정은 2009년 1부투어로 오르자마자 세이프웨이 클래식을 제패하며 이름을 알렸다. 다만 이후 스윙이 무너지면서 기나긴 슬럼프가 시작됐다. 2014년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 우승으로 재기를 알렸지만, 역시 다음 5년 동

안 우승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팬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가던 허미정은 이번 우승으로 다시 한 번 부활을 노래하게 됐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허미정 ▲생년월일=1989년 12월 5일 ▲출신교=대전성천초~월평중~대전체고~우송대 ▲후원사=대방건설 ▲소속사=브라운뉴 ▲프로 데뷔=2009년 ▲아마추어 우승경력=2005년 전국체전 개인전·단체전, 2006년 전국체전 개인전·단체전, 2006년 퀸시리키트컵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LPGA 투어 우승경력=2009년 세이프웨이 클래식, 2014년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 2019년 스코틀랜드 오픈

허미정 우승 소감

“남편이 같이 와 기쁨 두배 시아버님 덕분에 동기부여”

백년가약을 맺은 남편 앞에서 들어올린 첫 번째 우승 트로피가 의미가 깊었다.

허미정(30·대방건설)은 12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 정상을 밟은 뒤 “너무나 오랜만에 우승을 하게 됐다. 5년만이다. 정말 기쁘면서도 열렬하다. 특히 남편이 같이 와 있어서 기쁨이 두 배다”고 활짝 웃었다. 이어 “오늘날씨가 나쁘지만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허미정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남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당시 결혼식 직후 신혼여행을 미루고 곧바로 태국 전지훈련을 떠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남편과 함께 투어 생활을 이어간 허미정은 이번 대회에서 결혼 후 처음으로 평생의 동반자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물하게 됐다.

챔피언 퍼트를 성공시킨 뒤 남편과 감격의 포옹을 나누는 허미정은 “사실 오늘은 최종라운드 챔피언조에서 플레이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았다. 최대한 경기를 즐기자는 생각으로 임했다. 라운드 도중 스코어 보드도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경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시아버님께서 우승을 하면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말씀 덕분에 우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숨은 이야기를 밝혔다.

허미정은 끝으로 “오늘을 계기로 내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가길 바란다. 올 시즌 남은 경기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봉준 기자

후원선수들 릴레이 우승...대박 난 대방건설

4월 이정은6 이어 허미정까지 우승 LPGA서 확실한 존재감 ‘함박웃음’

감격적인 우승을 지켜본 메인스폰서가 함박웃음을 지은 하루였다.

허미정(30·대방건설)이 12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정상을 밟으면서 메인스폰서인 대방건설은 다시 한 번 휘파람을 불었다. 4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소속선수인 이정은(23)이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번의 기쁨을 다시금 맛보게 됐다.

이날 최종라운드가 열린 영국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클럽은 마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경연장 같았다.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한 한국 선수 허미정과 이정은이 국내 건설사인 대방건설과 그 브랜드인 ‘NOBLE LAND’ 로고가 나란히 적인 모자를 쓰고 나와 우승을 다뤘기 때문이다. 장대비가 계속해 내리던 상황에서 돌이 퍼낸 우산에도 대방건설이란 한글이 선명히 적혀있었다. 공교롭게도 허미정의 우승을 축하해주러 나온 호주 교포 오수현(23)의 메인스폰서 역시 대방건설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한국여자골프의 발전



이정은6



허미정

을 위해 골프단을 창단했다. 이어 2017년, 당시 기나긴 슬럼프로 고생하던 허미정을 영입했고, 지난해에는 이정은과 오수현을 차례로 품었다.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허미정과 이정은, 오수현을 후원하고 있는 대방건설은 골프계에서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브랜드 노출은 광고 효과와 곧바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방건설 관계자가 “소속선수들의 우승이 낳는 브랜드 노출 효과를 곧바로 수치화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다.

다만 대방건설은 허미정과 이정은의 연이은 우승을 앞세워 이제는 KLPGA 투어를 넘어 LPGA 투어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뽐내는 골프단으로 거듭나게 됐다.

고봉준 기자

초특가 파격할인
35% SALE

솔밥대통령™ 10구 기준

4,500,000원

2,920,000원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8구, 9구, 10구, 15구, 16구, 20구 외
맞춤 제작 가능

전압
전력
온도
시간



안전인증
전자파인증

사용전압 100V~240V (자동전압변환)
전압변환률 95%이상

전력 1000W~1500W

온도 100℃~200℃

시간 1시간~24시간

100℃~200℃

1시간~24시간

100℃~200℃

1시간~24시간

100℃~200℃

1시간~24시간

100℃~200℃

1시간~24시간

100℃~200℃

1시간~24시간

100℃~200℃

1시간~24시간

원조 **1위** 가볍고, 깨지지 않는 인덕션용 진짜 돌솥이 왔다!
식당용 전기돌솥밥기계의 기준!



1~5인솔·스텐솔·압력솔·돌솥·가마솥까지 전천후!
평판모델 「솔밥대통령 FLAT」

☎ 상담·시연문의 1833-9565

전국 어디든 무료 출장 시연 달려갑니다!

NAVER·DUM

솔밥대통령 / 박인성솔밥기

